

外債... 무엇이 問題인가

李 在 雄

〈成均館大學校 教授·經博〉

I

작년말 우리나라의 外債殘高는 373 억달러에 達했다. 1979 年末의 外債殘高 約 200 억달러에 비하면 지난 3 年동안 對外채무가 急速하게 늘어났다. 外債의 元金과 利子를 갚기 위한 對外支拂만도 우리의 상품수출 및 海外建設受注 등으로 벌어들인 外貨收入의 15.5 %에 達했다.

최근에 對外負債가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은 물론 79~80 年의 第2次 石油波動으로 石油輸入代錢이 大幅 늘었고 또한 近來에 國際高金利의 지속으로 과중한 利子부담이 對外支拂규모를 크게 擴大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近來 數年동안 선진국의 不景氣와 世界的인 保護貿易主義 추세 強化로 우리의 輸出도 70 年代에 비해서 成長率이 현저하게 떨어진 데에도 原因이 있다.

外債殘高 및 外國人 投資現況

〈表-1〉 (單位: 百만달러)

	外債(차관)잔고	직접 투자
1966	594	17
1971	3,385	118
1976	11,055	675
1979	19,863	1,004
1980	23,503	1,101
1981	32,490	1,207
1982	37,335	1,304

이같이 外債규모가 늘어나는 反面 수출은 어려운데다가 최근에는 國際金融市場여건마저 惡化됨에 따라 外債문제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 경제단체들도 國際收支를 改善하고 外債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거듭 促求하고 있다.

外債 또는 外資도입 문제는 兩面性을 갖고 있는 듯하다. 우선 外債라면 語感부터가 극히 負擔스럽고 우려되는 反面 外資導入이라면 相當히 긍정적인 紐앙스를 풍긴다. 그동안 外資導入이 경제成長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던가 그래서 外資도입을 장려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인 듯하다.

昨年여름이후 國內金利가 大幅引下되고 國內外金利隔差가 擴大되자 外資導入이 低調하고 심지어, 국내자금의 海外流出사태까지 생겼다. 國際收支 문제가 어렵게 되었고 外資調達이 不振하게 되어 상당한 우려를 낳았다. 다시말해서 外債는 順調롭게 늘지 않아도 걱정, 늘면 늘어서 걱정인 것이다. 늘어도 걱정, 안늘어도 걱정이기 때문에 外債문제란 우리가 우려할 바 없는 無關한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外債가 늘어나는 原因과 結果를 明白하게 理解하고 이를 改善하는 方案의 선택에 있다.

그러면 外債는 왜 늘어나는가?

우리나라는 外資의존도가 높다고 한다. 第1次 5 個年계획(1962~66年)이 實施된 이래 오늘날까지 경제개발을 위한 의욕적인 투자는 항상 국내저축수준을 웃돌았다.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1次 계획기간중에는 국내투자의 半以上을 海外에서 들여온 빚으로 充當했다. 외자의존도는 2次와 3次 經濟開發 계획기간 중에 현저하게 줄었으나 4次 기간중에는 외채의존도가 3次 기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아마 4次 기간(1977~81年)에 외자의존도가 反騰한 원인은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반면에 國際高金利에 따른 利子支拂이 늘어난 때문이 아닌가 한다. 現在 進行 중인 5次 계획기간 중에도 마지막 해인 1986년까지 경상수지의 균형을 目標로 하고 있지만 기간 전체로는 외자의존도가 13.3%로 책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相當기간 우리의 外資導入은 不可避한 實情이다. 해외저축(外資)에 대한 높은 依存度는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事實을 말해준다.

첫째, 외채가 늘어나는 根本的인 原因은 국내저축이 경제성장에 必要한 높은 수준의 投資에 相對的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60年代에는 우리의 所得水準이 낮았기 때문에 국내저축이 低調했다. 그러나 70年代에 와서는 경제성장, 소득증대와 더불어 국내저축도 꾸준히 늘었다. 그동안 해외저축에 대한 依存도가 점차 낮아진 것은 多幸한 일이라고 하겠다.

물론 아직도 臺灣 日本, 기타 여러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貯蓄은 낮다. 그러나 저축증가추세가 투자증가율을 계속 앞지른다면 외채의 의존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결국 國際收支를 방어하고 외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축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과거의 높은 투자율은 70年代 후반까지 우리경제의 成長率을 높여왔음을 생각할 때

投資와 貯蓄推移

<表-2> (單位: %)

	投資率	國內貯蓄率	海外貯蓄率	海外貯蓄 / 投資
1962~66	16.3	8.0	8.3	50.9
1967~71	26.6	15.1	11.5	43.2
1972~76	27.1	20.8	6.3	23.2
1977~81	31.5	23.9	7.6	24.1
1982~86 ¹⁾	31.6	27.4	4.2	13.3

註: 1) 目標值 對 GNP 比率

外資역시 경제발전에 지렛대 役割을 했다고 할 수 있다. 第1次에서 3次까지 15年 동안 GNP 성장률은 年平均 9.3%였다. 이 기간 동안 투자율은 年平均 23.3%였다.

여기서 한가지 注目해야 할 것은 第4次 기간중의 투자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도 不拘하고 成長率은 가장 低調했다. 심지어 1980년에는 마이너스 成長도 경험했다. 다시말해서 投資의 量的 增大만이 成長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點이다. 70年代 中盤以後 重化學部門 등에 集中되었던 무리한 투자, 重複투자 등은 투자效率을 크게 떨어 뜨렸다. 이러한 非效率的인 投資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相當한 外資를 導入한 결과 외채를 급격하게 上昇시킨 원인이 되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외채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도 投資效率을 높여야 한다. 투자효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자원의 合理的 配分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째, 外資도입의 原因을 다른 側面에서 볼 때에는 수입과 수출(상품과 서서비스를 포함한)의 差, 즉 經常收支赤字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外債가 해마다 增加되는 原因도 바로 경상수지가 지속적인 赤字를 記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際收支방어가 외채를 줄이는 直接的인 方法이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對外國 경쟁력이 強化되어야 한다. 대외경쟁력이란 결국 같은 품질이면 우리 商品의 값이 싸거나 같은 값이면 우리 商品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 이것은 技術혁신에 따른 生産性 向上, 물가안정, 企業의 經營合理化 등을 必要로 한다. 특히 企業이 生産性 向上 없이 政府支援에 따르는 價格 경쟁력에만 의존할 때 非能率과 인플레이로 輸出擴大에 제약이 될 것이다.

또한 經營合理化 없이 負債를 늘려서 利益을 外形 확대에만 依存하려 할 때 外資 依存도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外債는 누가얼어다 쓰는 것인가? 대부분이 企業이다. 외채의 約 60%는 企業이 導入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企業의 財務構造改善 노력은 外債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II

그러면 外債가 증가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個人이나 企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國家全體로도 對外債務가 높아지면 元利金상환부담이 커진다. 특히 80年代에 들어서는 國際高金利로 因해서 利子支拂이 크게 늘고 있다. 우리도 昨年, 再昨年에 利子支拂額이 外債元金상환보다도 훨씬 많았다. 이같이 높은 利子支拂은 곧 우리所得의 海外移轉을 뜻하여 國內의 소득감소를 가져온다. 82年의 경우 元利金상환 60억달러중에서 元金상환분은 22억달러에 不過했다. 今年에도 元利金상환 부담의 全體外貨收入에 대한 비율은 15% 수준에 머무를 展望이다. 흔히 國際金融 전문가들은 이 元利金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이 20%에 이르르면 危險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外債가 눈덩이처럼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一國의 對外信用을 얼마나 急速히 떨어뜨리는가를 最近의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상환부담이 늘게 되면 그 자체로도 國際收支에 壓迫要因이 되며 외채를 갚기 위해서 더욱 外채를 들여와야 하는 까닭에 外채관리, 國際收支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금년에도 우리는 63억달러의 外資를 더 들여올 計劃인데 이중에서 순外債증가 및 기타가 38억달러이다. 反面에 빚을 갚기 위해서 들여오는 빚이 25억달러인 셈이다.

빚많은 企業이 不景氣에 倒産하기 쉽듯이 국제경제여건 및 國際金融市場여건이 不利해지면 急速도로 支拂能力이 弱화된다. 對外支拂能力이 弱화되면 우선 投資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成長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또한 外債상환을 못하게 될 때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近來에 많이 보아 왔다.

近來에 대부분 開發途上國들이 外債문제가 심각해지고 輸出은 不振하게 됨에 따라 輸入餘力, 投資餘력이 모두 낮아졌다. 과거에 높은 成長을 보이던 거의 대부분 開發途上國들이 最近에 들어

서 成長둔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원인도 外債負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 전체로서 外債총액은 약 6,000억달러 이상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도국들이 이같이 巨額의 負債를 지고 있는 원인도 역시 石油파동, 國際高金利에 따른 對外支拂규모의 擴大에다 先進國들의 不景氣, 失業 등에 따른 需要감퇴와 保護무역主義추세의 강화로 輸出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外債規模가 늘어나게 되면 償還期間 역시 점차 短期化해서 상환負擔이 단기에 集中하는 경향을 보인다. 長期的으로 아무리 成長 잠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集中도래하는 外債를 支拂하지 못한다면 不渡를 내게되는 것은 企業이나 國家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위험을 防止하기 위해서도 外債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특히 상환期間構造의 改善에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단기외채비율도 70년대 중반까지는 全體외채의 20% 수준이었으나 最近엔 1/3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같은 단기차관의 증가로 금년도 元利金상환액이 1년미만차관을 포함해서 157억달러에 達한다. 이러한 상환액을 또다른 단기차입으로 充當하게 되면 단기차관비율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단기차관이 늘어나면 경제운용과 국제수지 문제가 더욱 단기적인 국제금융 및 外換市場변동에 따라 크게 충격을 받게 된다.

이같이 外債가 늘어나면 國際收支방어와 外채관리를 더욱 不安定하게 한다. 그러면 最近에 개도국의 外債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國際金融市場여건을 살펴보자

III

1981年以來 폴란드 등 東歐諸國의 外換위기로 表面化되기 시작한 국제금융환경악화는 昨年 멕시코, 브라질을 비롯한 中南美國家들의 外債상환 不能사태로 더욱 惡化되었다. 멕시코, 브라질은 얼마전 IMF가 그동안 融資條件으로 제시해 왔던 사항들에 대해 同意함으로써 이들이

IMF의 용자를 얻게되어 破局만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開途國들이 今年中에 상환해야 할 단기차관 총액이 約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反面, 대부분 借入國들이 상환능력을 갖고있지 못하는데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借入條件은 이들에게 더욱 不利해지고 있다. 따라서 世界경제가 本格的으로 回復局面에 들어서기까지는 國際金融不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今年중에 거액의 외채상환이 도래하는 많은 開途國들로서는 國際상업은행들로부터 추가적인 협조용자를 얻을 수 밖에 없는데 이들과의 交渉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개도국들이 가령 상환연기(不渡)는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外債문제가 早期에 해결될 수는 없다. 이들은 국제수지악화로 인축정책의 실시가 不可避하여 이미 심각한 不況으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침체상태를 免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國際금융不安은 금년초에 접어들면서 아시아국가들의 借入條件까지 惡化시키고 있다. 最近까지 아시아國家들에게는 東歐, 中南美 등 여타지역에 비해 信認도가 높아서 차관을 제공하려는 은행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비교적 유리한 貸出條件을 제공해 왔다. 基本貸出金利에 부과되는 加算金利(Spread)도 낮은 水準을 유지했고 상환기간도 中期貸出의 경우 10年정도였다. 昨年末現在 신디케이트본의 加算金利는 LIBOR(런던銀行間貸出金利)를 기본貸出金利로 한 경우 아시아에서 제일 不利한 여건의 필리핀이 0.875~1%, 가장 有利한 말레이시아가 0.1% 内外로 브라질의 2.125~2.25%에 비하면 훨씬 낮았다.

그러나 今年들어서부터 국제상업은행들의 아시아諸國에 대한 태도도 앞으로 단시일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國際金融不安과 경상수지赤字를 메꾸기 위한 이들 國家들의 借入需要豫想을 反映해서 借入國에 不利한 方向으로 바뀌고 있다. 今年봄에 체결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차관협정에서 차관은행들은 종전보다 높은 가산金利를 적용하고 상환기간도 다소 단축되는 등 不利한 條件을 보였다.

最近에 韓國外換銀行이 導入한 5억달러 借款의 加算金利도 0.625%로 작년의 같은 규모의 外換銀行차관에 비해서 惡化되었으며 기간도 8年으로 단축되었다. 5월에 체결한 韓國輸出入銀行의 3억달러 借款은 金利面에서 좀더 不利하다고 한다.

국제금융시장의 借入여건이 全般的으로 악화되고 있는 原因으로는, 첫째 국제상업은행들이 對開途國대출을 줄이거나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不安으로 특히 群小은행들이 차관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개도국의 外資調達에 곤란을 加重시킨다. 이미 개도국에 巨額을 貸出해 준 大은행들은 채무국의 전반적인 채무불이행사태에 따르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追加貸出을 피할 수 없는 立場에 있으나 群小은행들은 차관단에서 이탈하여 주로 國內與信에 主力하고 있다.

국제상업은행들의 開途國대출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日本 등 先進國의 금융정책당국도 이미 과도한 상태에 있는 개도국貸出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규제·감독을 실시하거나 強化할 움직임을 보인다.

한편 借入여건을 惡化시키는 또 다른 原因으로는 開途國의 借入수요가 계속 증대되어 온 점을 들 수 있다. 개도국들은 그동안 세계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一次產品 價格下落 등으로 수출이 不振하여 경상수지赤字가 늘어난 데다 거액의 外債元利金 상환기한이 계속 도래하고 있다. 특히 70年代이후 開途國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와 國際公共차관의 比重이 현저하게 줄어 개도국들은 줄어든 幅만큼을 국제상업차관에 依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더구나 은행들이 금융不安으로 中長期용자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외채상환을 위해서 우선 차입이 용이한 단기차관을 도입할 수 밖에 없으며 최근 개도국들은 이같은 단기채무가 누적돼 이를 대체하기 위한 금융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

또 한가지 국제금융여건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는 그동안 막대한 오일·머니로 開途國의 자

금융요를 充當해 온 OPEC 國家들 역시 81年 이후 오히려 자금借入者로 바뀌어 차입여건을 더욱 경색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相當數의 유럽국가들도 앞으로 차입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미 昨年末부터 소요外資의 확보를 위해 유로·본드市場에서 기채를 앞당기고 있다. 따라서 國際信認도가 낮은 開途國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形便이다.

IV

국제금융不安을 해결하는 한가지 方法으로 IMF 및 IBRD, 地域開發銀行 등의 役割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強力하게 대두된다. IMF는 지난 2月 쿼터增額과 一般借入協定의 확대개편에 合議했다. 이번 決定은 IMF 쿼터를 668억달러에서 985억달러로 증액하고 一般借入協定자금도 종전의 71억달러에서 190억달러로 증액, 開途國에도 利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擴大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서 外債위기에 처해 있는 開途國에 대해 긴급 금융지원을 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安全장치로서 어느 정도 국제상업은행의 貸出의욕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共同노력이 실패할 경우 國際流動性的 不足으로 開途國들의 경제성장은 크게 후퇴할 것이다. 개도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先進國과 개도국경제間的 相互依存관계가 높기 때문에 先進國의 成長도 둔화된다. 國際金融市

主要債務國의 外債現況

<表-3> (單位: 억달러)

	82年末 추정잔액	83年中 元利金상환액
브 라 질	870	308
멕시코	801	431
베네수엘라	280	199
아르헨티나	430	184
필리핀	166	70
나이지리아	93	49
유고슬라비아	190	60

資料: 모건·개런티銀行 및 Business Week, 1983年 2月 14日

場 不安자체도 곧 先進國 금융시장의 不安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外債問題에 대해서 先進國들도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갖게 된다. 실제로 先進國과 開途國경제의 의존도를 무역면에서 보면 현재 선진국 수출의 25%를 개도국이 소화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 총수출의 45%까지, 美國은 38%를 개도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外債문제 해결을 위해서 先進國과 開途國이 共同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支配的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世界의 무역과 경제성장이 더욱 不振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V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금융不安과 開途國들의 심각한 外債問題는 우리에게도 철저한 外債관리와 國際收支방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최근에 一部 企業들은 外債를 줄이기 위해서 輸入을 抑制하고 國內産業을 보호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사실 外債가 이렇게 늘어난 原因도 결국 과거에 企業들이 다투어서 外債를 들여왔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뿐 아니라 企業成長도 外資에 依存한 바 컸다. 과거에 높은 인플레이로 國內 저축은 항상 不足했다. 따라서 돈은 많이 꾸면 꿀수록 좋고 꿀 수만 있으면 우선 빌리고 보자는 心理도 상당히 作用해서 國內외의 자금을 可能な 限 많이 빌렸다. 특히 國內금리가 높을 때는 外資를 들여오는 것이 매우 有利했기 때문에 一種의 特惠가 되었다. 따라서 企業財務구조는 惡化되었다. 이것도 國內저축이 높다면 外債까지 들여올 必要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가 높았고 금융貯蓄의 實質金리가 낮았기 때문에 저축이 높을 수 없었다. 國際收支를 改善하고 外債를 줄이는 根本的인 方案은 결국 國內저축을 늘려야 하며 그와 아울러서 企業財務구조를 改善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가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저축을 증대하고 자금을 진정한 企業의 生産투자활동에 배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축을 늘리는 것은 口號로만

은 안된다. 실질적인 저축유인이 있어야 한다. 저축하는 사람들을 失望시킨 事例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가. 또한 저축자금이 企業활동에 효율적으로 配分되어야 한다. 企業이 쓰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生産資金이요 투자자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金利를 낮추고 자금供給을 擴大하는 것이 企業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으로는 貯蓄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인플레이와 外債의존을 높이는 原因이 될 수 있다. 적절한 금리부담은 企業으로 하여금 보다 生産的으로 자금을 利用하게 해서 기술혁신, 경영合理化, 生産性向上에 노력하며 財務구조를 改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건전한 기업경영과 品質改善으로 國內소비자들도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改善이 특혜적인 低金利로는 不可能하다. 企業은 金利惠澤과 자금특혜나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경영合理化에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다. 內資동원을 극대화하고 자원配分을 合理化하기 위해서 金融自律化도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자율화가 은행 民營化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환경의 改善과 함께 단계적으로 金利自律化가 따라야 한다. 국내자금이건 外資導入이건 特定산업에 혹은 一部 企業에 금리 및 자금의 혜택을 주기 위한 자금할당을 계속해서도 안된다. 또한 企業들이 財務구조를 改善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마치 口號에만 그치는 生産性向上, 경영合理化처럼 말로만 재무구조를 改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負債가 많아서 信用이 낮은 기업은 금융비용, 다시 말해서 利率가 높고 貸出條件도 不利하게 되어야 한다. 反面에 財務구조가 健全해서 信用이 높은 기업은 낮은 金利에 有利한 貸出조건, 豊富한 자금을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기업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 할 것이다. 또 信用이 아주 나쁜 企業은 金融혜택을 不許하여 信用社會에서 隔離시켜야 신용질서가 확립되고 저축자에게도 피해가 없을 것이다. 결국 기업의 자금은 저축에서 나오는 것이다. 金融自律化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合理的으로 해결해서 저축도 늘

리고 企業에 자금供給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輸出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物價安定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물가가 安定되어야 우리 상품의 對外 경쟁력도 強化되어 수출이 늘뿐 아니라 外國상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되어 수입도 둔화된다. 물가를 安定시키기 위해선 인플레이를 유발하는 통화재정정책 또는 不確實性을 크게 하는 정책의 試行錯誤도 줄여야 한다. 企業의 立場에서도 物價安定을 위해서 財務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그동안 우리의 외자도입은 거의 96%가 차관에 依存해 왔다. 차관은 企業의 경우 은행빚이나 會社債와 같이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元利金을 계약대로 갚아야 한다. 따라서 차관비중이 크게 되면 外債관리도 伸縮性이 없고 더 어렵다. 反面에 1960年代 이후 外國人の 直接투자는 4%水準으로 저조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외자도입의 또 다른 방법이다. 直接투자의 경우 상환기간이 반드시 到來하는 것도 아니며 투자수익은 경영成長 및 國內경제여건에 따라 신축성이 있어서 상환부담 壓迫이 훨씬 적다. 뿐만 아니라 直接투자에 따라 부수적으로 도입되는 技術移轉, 경영상의 노우·하우(know-how)도 貴重한 것이다. 따라서 外資導入도 그 채널을 多邊化할 겸 外國人 直接투자도 더욱 擴大해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자금을 끌어드리는 方法으로 國內資本市場을 점차 外國人에 開放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미 國際投資信託케이스로 2건에 3,000만달러를 開設했으나 코리아·펀드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最近 臺灣도 이 分野에서 서둘러 國內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外債를 누가 負擔하게 되느냐는 것이다. 우리 國民1人當 외채부담은 個人으로서 빚을 졌든 안졌든 간에 今年中에 1,000 달러가 넘게 된다. 또 이렇게 빚이 늘어간다면 經濟全體에도 큰 成長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外債를 줄이자는데 누가 反對하겠는가? ♣♣